

1. 문학과 삶 (2) 노새 두 마리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으므로 얼마 전까지도 모두 그날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연탄 배달도 일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다. 기껏해야 구멍가게에서 두서너 장을 사서는 새끼줄에 대롱대롱 매달고 가는 게 고작이었다. 그랬는데 이삼 년 전부터 아직도 많은 빈터에 집터가 다져지고, 하나둘 문화 주택이 들어서더니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동네 꼴이 잡혀 갔다. 원래부터 있던 허름한 집들과 새로 생긴 집들과는 골목 하나를 경계로 하여 금을 굵듯 나누어져 있었는데, 먼 데서 보면 제법 그럴싸한 동네로 보였다. 일단 들어와 보면 지저분한 헌 동네가 이웃에 널려 있지만, 그냥 먼발치로만 보면 2층 슬래브 집들에 가려 딱지딱지 붙은 판잣집 등숙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서울의 변두리에 흔한 여느 신흥 부락으로만 보였다.

(나) 그러나 동네의 모습이 이처럼 달라지기는 했어도 구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일은 없었다.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으로 새 동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 다만 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구동네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 아무도 그걸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아버지도 배달 일이 늘어나서 속으로는 새 동네가 생긴 것을 은근히 싫어하지는 않는 눈치였지만, 식구들 앞에서조차 맞대놓고 그런 내색을 하지는 않았다.

(다) 원래의 우리 동네에서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중략) 그러나 새 동네에서는 단연 달랐다. 여간해서 말을 잘 않는 아주머니들도 우리 노새를 보면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개중에는, / “아이, 귀여워, 오랜만에 보는 노샌데.” / 하기도 하고,

“어머, 지금도 노새가 있었네.” / 하기도 하고, / “아니, 이게 노새 아니에요? 아주 예쁘게 생겼네.” / 하기도 하고,

01 이 글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결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한다.
- ② 배경 묘사를 통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식 구성이다.
- ④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던 1970년대가 작품의 배경이다.
- ⑤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이를 상세하게 묘사한다.

02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가 아닌 것은?

- | | |
|---------|---------|
| ① 연탄 | ② 노새 |
| ③ 변두리 | ④ 문화 주택 |
| ⑤ 슬래브 집 | |

서술형

03 새로 생긴 동네에 관한 아버지의 태도를 (나)를 참고하여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 근거를 들어 아버지의 태도를 쓸 것
- 한 문장으로 쓸 것

04 새 동네 사람들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 ② 노새에게 흥미와 관심을 보인다.
- ③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 ④ 문화 주택, 슬래브 집에서 생활한다.
- ⑤ 구동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버지와 헤어진 나는 사뭇 뛰었다. 사람들은 거리에 가득 넘쳐 있었다. 크고 작은 자동차는 뽕뽕거리면서 씩씩 달려가고 달려오고 하였다. 5층 건물, 3층 건물이 즐비한 거리는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느냐고, 노새를 찾아 나선 길이나고 묻지 않았다. 아무도 네가 찾는 노새가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다고 걱정 말라고 일러 주지 않았다. 나는 이 사람에게 툭 부딪치고, 저 사람에게 툭 부딪치면서 사뭇 뛰었다. 그러나 뛰면서도 둘레둘레 사방을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벌써 거리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미 앞이마에 헤드라이트를 켜 자동차도 있었다. ㉡ 나는 그런 자동차들이 막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였다.

(나) 까마귀 새끼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까맣게 연탄 가루를 뒤집어쓰고 다닌대서 그 아들인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중략) 하지만 저 희네들 아버지는 별것이었던가. 영길이네 아버지는 조그마한 기계와 연탄불을 피워 가지고 다니면서 뽕 소리와 함께 생쌀을 납작하게 눌러 튀겨 내는 장사를 하고 있었고, 종달이네 형님은 번데기 장수였다. 순철이네 아버지는 시장 경비원이었고, 귀달네 아버지는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길이더러 '뽕', 종달이더러는 '뽕'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으며, 순철이, 귀달이도 모두 하나씩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까마귀 새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별로 억울할 것도 없었다.

(다) 내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열 시도 넘어서였으나 아버지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귀뜸으로 미리 ㉢ 사건을 알고 있었던지, 내가 들어서자 얼른 뛰어나오며 허겁지겁 물었다.

“찾았니?”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

내가 혼자 들어서는 걸 보면 찾지 못한 것을 변연히 알면서도 어머니는 다그쳐 물어 댔다.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줄 생각도 하지 않고 한

숨만 내리쉬고 올려 쉬곤 하였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되어서였다. 예상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빈 몸이었고 형편없이 힘이 빠져 있었다. (중략) 아버지는 지금 내일부터 당장 별이를 나갈 수 없는 아픔보다도 길들여 키워 온 노새가 가여워서 저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10 ㉠에 나타난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군.
- ② 설마가 사람 잡는 줄 모르는군.
- ③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격이군.
- ④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군.
- 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군.

11 ㉡에 담긴 '나'의 심리로 알맞은 것은?

- | | |
|-------|-------|
| ① 화남 | ② 짜증 |
| ③ 즐거움 | ④ 가엾음 |
| ⑤ 간절함 | |

12 (나)의 별명들을 바탕으로 하여 알 수 있는 사실로 알맞은 것은?

- ① 서로의 별명을 부러워한다.
- ② 아이들의 겉모습에서 비롯됐다.
- ③ '나'와 친구들은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 ④ 구동네 사람들은 주로 육체노동을 하고 있다.
- ⑤ 자신에게 별명이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저술형

13 ㉢이 '나'의 가족에게 끼칠 영향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 ㉢이 무엇인지 밝혀 쓸 것
- (다)에서 근거를 찾아 쓸 것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버지는 원래가 마부였다.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에서도 줄곧 말 마차를 끌었다. 어쩌다가 소달구지를 끄는 적도 있기는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도로 말 마차로 바꾸곤 했다. 그런 아버지였으므로 서울에 올라와서는 내내 말 마차 하나로 버텨 나왔었는데 어떻게 마음먹었는지 노새로 바꾸고 만 것이다.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삼륜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드는 듯하기도 했다.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 안 집까지도 드르륵 들이닥치니 아버지의 말 마차가 위협을 느낌 직도 했고, 사실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소리였다.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는 아버지의 그 말 뒤에 숨은 오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 아버지와 나는 한도 끝도 없이 걸었다. 어느새 거리는 점심때쯤 되었고,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다. 어느 곳을 가나 거리는 사람으로 붐벼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자더러 어디를 그리 바빠 가느냐고, 노새를 찾다니느냐고 묻지 않았고, 아버지와 나는 아무에게도 노새를 보지 못했느냐고 묻지 않았다. 다리는 쇠사슬을 단 것처럼 무겁고, 배가 고프고 쓰렸다. 나는 그런 우리가 옛날얘기에 나오는 길 잃은 나그네 같다고 생각했다. 길은 멀고 해는 저물었는데 쉬어 갈 곳이라고는 없는 그런 처지 같았다. 아무리 가도 인가는 나타나지 않고, 멀리서 깜박깜박 비치는 불빛도 없었다. 보이느니 거친 산과 들뿐 사람이나 노새는 보이지 않았다.

(다)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 얼룩말은 두 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 번 쳐다보고, 얼룩말을 한 번 쳐다보고 하였다. 그러다가 아버

지의 얼굴이 어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길게 찢긴,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벌름벌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 와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해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 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14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삼륜차로 인해 아버지의 일감이 줄었다.
- ② '나'의 집안은 조상 대대로 마부 일을 했다.
- ③ 아버지와 '나'는 얼룩말을 보기 위해 동물원에 갔다.
- ④ 아버지와 '나'는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을 부담스러워했다.
- ⑤ '나'는 노새를 찾느라 사람들의 물음에 대답할 여유가 없었다.

15 아버지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 ② 노새를 부리는 데 오기를 갖고 있다.
- ③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시골에서 마차를 끌었다.
- ④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것만을 고집한다.
- ⑤ 나라의 휘발유 수입을 줄이고자 노새로 연탄 배달을 한다.

서술형

16 이 소설의 제목인 '노새 두 마리'의 의미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 '노새 두 마리'가 가리키는 대상을 밝힐 것
- '노새 두 마리는 ~을/를 가리키며, 이는 ~을/를 의미한다.'의 형식으로 쓸 것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동네가 저만치 보였을 때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 ㉠ 대포집에서 발을 멈추었다. 힐끗 나를 돌아보고 나서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런 일도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중략) 아버지는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키더니 안주는 내 쪽으로 밀어 주고 술만 거푸 마셔 댔다. 아버지는 술이 약한 편이어서 저러다가 어찌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중략)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수 있니?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힃 한 번 웃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 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힃 웃었다.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 먹었는데 술 취한 사람마냥 턱없이 즐거웠다. 노새 가족—노새 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다.

(나)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당도했을 때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우리를 본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 나와 매달렸다.

“이걸 어찌우, 글썄 경찰서에서 당신을 오래요.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고 가게 물건들을 박살을 냈대요. 이걸 어찌지.”

“노새는 찾았대?”

“찾거나 그러면 괜찮게요? 노새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만 다치고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끝에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왔지 뭐유.”

오늘 낮에 지서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튼 바람에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도로 무슨 법이라나 하는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넣어야겠다고 이르고 갔다는 것이었다.

(다)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아, 우

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봉봉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뱅뱅거리고, 자전거가 뽕뽕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러야지 지금이 어느 댜데 노새를 부려.”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17 ㉠의 공간적 배경이 지니는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버지와 ‘나’가 화해하는 공간이다.
- ② 아버지의 태도가 변화하는 공간이다.
- ③ 아버지가 삶의 의지를 다지는 공간이다.
- ④ 아버지가 노새를 잃은 상실감을 달래는 공간이다.
- ⑤ 아버지가 노새가 사라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공간이다.

18 (다)와 같은 결말을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로 알맞은 것은?

- ① 빈부 격차로 인한 도시 사람들의 갈등
- ②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현대인의 모습
- ③ 가족 간의 행복과 정이 사라져 가는 오늘날의 현실
- ④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의 피해
- ⑤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도시 빈민의 고단한 삶

19 ‘노새’의 상징적 의미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일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
- ②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존재
- ③ 도시화한 사회에서 사라져 가는 존재
- ④ 산업화한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는 존재
- 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버지 사라실 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닦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 제4수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내 논 다 매거든 네 논 좀 매어 주마
울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스라
- 제13수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늙기도 설워라커든 짐을 조차 지실까
- 제16수
- 정철, <훈민가>에서

(나)



1960년대에 소록도를 찾은 오스트리아 간호사, 마리아느와 마거릿.



강제 수용된 한센인들은 성치 않은 몸으로
중노동에 시달렸고, (중략) 가족들에게조차 버
림받은 한센인들은 병이 나아도 돌아갈 곳이
없었다.



1960년대 당시엔 전염의 공포가 매우 컸다.
(중략) 보육원에 아이들을 맡긴 뒤 이렇게 멀
리 떨어져 눈으로만 혈육을 만나야 했다.



2005년까지 오랜 시간 소록도에서 자원봉사
를 하며 살아온 마리아느와 마거릿.
- '마리아느와 마거릿' 누리집에서

20 (가)의 내용을 고려할 때, 글쓴이가 (가)를 쓴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 ②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전달하기 위해
- ③ 자신의 업적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 ④ 농사짓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 ⑤ 백성들이 유교적 덕목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21 (가)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돈을 아껴 써야 해.
- ② 부모님께 효도해야 해.
- ③ 웃어른을 공경해야 해.
- ④ 부지런한 생활 태도가 중요해.
- ⑤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해.

서술형

22 (가)와 (나)에서 중요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가)와 (나)에 담긴 삶의 가치를 각각 밝힐 것